

세상을 바꾸는 투쟁, 이제 시작이다.

8 민주노총 | 2007.12.19 06:52

17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날, 권영길 후보 유세 서울지역 총력전

대통령 선거운동 마지막날, 서울지역 집중유세가 몰아쳤다. 권영길 후보는 14곳에서 릴레이 유세전을 펼치고, 이석행 위원장은 영등포시장, 여의도, 명동 등 서울 곳곳을 누비며 기호 3번에 한 표 던질 것을 호소했다.

영등포시장 유세에 이어 여의도에서는 청년유세단과 함께 민주노총 임원들이 가세했다.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영희 정치위원장, 김금자 회계감사 등이 유세에 결합했다.

점심시간, 경쾌한 유세곡에 맞춘 청년들의 발랄한 율동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지유세에 나선 이석행 위원장은 “노동자 피땀흘려 일했는데 현장에서 땀흘리는 노동자 삶이 각박하다. 주식투기하는 자가 더 잘 산다.”고 한탄하며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 이런 사람 대통령되면 부정부패가 상식이 된다. 자식 위장취업으로 월급 떼어먹는 사람이 청년실업 해결할 수 없다. 현대건설 도탄에 빠뜨린 사람이 이 나라 경제 살린다는 건 거짓이다.”며 이명박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가장 정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자. 87년 대투쟁의 주역, 여의도 넥타이부대가 이 나라 민주화했다. 그 결말이 지금 비정규직화다. 군사독재 몰아낸 여러분이 새로운 민주화 만들어 내자.”고 적극 호소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이명박이 국민들 표로 자기를 지켜달라더라. 만약에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우리 노동자, 서민 지켜 주겠나. 경제살리겠다더니 어제 이명박 때문에 주가가 55포인트 떨어졌다. 주가조작, 부패비리 이명박 청와대 가는 것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87년 군부독재 끌어내린 자랑스런 넥타이 부대, 우리 마음이 바뀌면 여론이 바뀐다.”며 노동자 대통령에 소중한 한표를 모을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여의도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다.

자기에 맞게 투표해야 한다. 노동자 후보 권영길 찍자.

투명한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한다. 정직한 사람이 바로 권영길이다.

서민 생활을 아는 권영길 지지한다.

이번 대선은 총선을 위한 저축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율을 꼭 높여보자.

권영길은 정통 노동자다, 서민의 마음 잘 알아주는 권영길에게 한 표 던지겠다.

이명박은 사퇴해야 한다. 누구나 아는 BBK문제, 이명박은 거짓말 하고 있다. 현대 말아먹고 경제 살리겠다니 말도 안된다.

■ 여의도 사무금융노조 현장순회방문

사무금융노조가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에서 현장순회방문을 진행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노조(위원장 박병철), 한국화재보험협회지부(위원장 백광현), 보험개발원지부(위원장 박길조), 알리안츠생명 노조(위원장 제종규), 한국증권금융 노조(위원장 강종규), CJ투자증권 노조 등을 방문해 마지막까지 계급투표를 호소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대선 기간 전국을 돌며 노동자 계급투표를 조직했다. 서울이 많이 냉랭한데 넥타이 부대가 나서서 남은 몇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보자.”며 마지막까지 조합원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표를 조직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 서대문에 있는 NH농협중앙회 노조를 방문했다. 지난 9대 집행부 취임식에 이어 새 집행부들이 모두 정치실천단이 되어 ‘행복 8010’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석행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조합원들을 만났다. “일하느라 바쁜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보다 향후 5년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 대선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는데 민주노총 주인인 여러분이 한 몫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많이 봤던 노동자 권영길을 지금부터라도 적극 알려내야겠다.”, “매번 될 사람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권영길 후보 득표를 올리는데 집중해야겠다.”고 이야기했다.

현장 순회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농성장을 방문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금이 동결돼 ‘실질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2일째 김승원 위원장이 단식농성 중이었다. 이석행 위원장이 매년 대선강연 때마다 이야기한 바로 그 한국은행 노조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단식 투쟁 경험을 이야기하며 김승원 위원장을 격려했고, 투쟁 승리를 기원하며 내년 민주노총의 힘을 보여주는 투쟁도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 광화문 촛불집회 및 명동 마지막 유세

광화문에서는 ‘부패정치 청산, 비리후보 사퇴를 위한 범국민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비리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었다. 이석행 위원장은 위장취업, 세금탈루, 심지어 비서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떠넘긴 이명박을 비판하며 “거짓이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다.

또한 “그렇리 없지만 만약이라도 이명박이 된다면 민주노총은 거짓사기꾼 이명박에 맞서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골간을 멈추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함께할 것을 요구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큰 함성으로 화답했다.

9시에 명동사거리와 입구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권영길 후보 마지막 유세가 펼쳐졌다.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과 함께 이석행 위원장이 지지유세에 나섰다.

지지유세에서는 “노동자, 농민, 서민이 권영길과 함께 청와대 가자. 여기 있는 여러분이 권영길 되어 마지막까지 대선승리를 위해 뛰자.”며 “삼성 재벌에 돈 안 받고, 60년 정경유착 고리 끊어낼 깨끗한 후보 권영길, 노동자가 일자리 걱정 안하고 비정규직 없앨 대통령, 농민, 빈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신명나는 세상 만들 권영길을 지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권영길 후보는 “대선 기간동안 권영길과 함께 노동자, 민중, 서민이 되어 함께 뛰어준 유세단,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 감사드린다. 10년 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투쟁한 기억이 떠오른다. 그 때부터 노동자 살리는 후보, 농민, 철거민, 서민들을 대변하는 대통령 후보로 뛰어왔다.”며 97년 대선 때 처음 후보로 나섰던 때를 소회했다.

이어 “권영길의 선거운동은 해고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에서, 농민과 철거민, 도시빈민의 삶과 투쟁현장에서 있었다. 민중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멈출 수가 없다. 오늘 17대 대통령 선거운동은 마감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투쟁시작을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며 내일부터 새 세상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회의 소금이다. 소금이 녹지 않도록 시민들이 민주노동당을 지키고, 더욱 키워주시길 바란다. 2008년 총선승리로 보답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의 포부를 밝혔다.

명동을 지나는 시민들은 거리 유세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권영길 후보 연설과 지지유세에 큰 박수를 보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은 “서민들과 약한 사람들 곁에 항상 함께하는 권영길 후보에 지지를 보낸다. 내일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대선평화특별취재팀=김보연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 kctu@nodong.org